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8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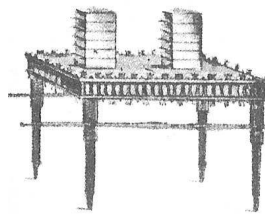
성소의 기구들의 구체적인 의미

시작하는 말: 지난 과에서 우리는 성소 뜰에 있는 기구들과 성소의 기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것은 죄인이 갈바리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 받고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씻기심으로 주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은 성소 안의 기구와 그 의미를 연구하려 한다. 이것은 성도의 위치와 생활의 고귀성을 가르치고 있다.

1. 성소의 북쪽에는 떡 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과 우리의 삶과 기력이 전적으로 예수께 의존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출 25:23-30]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 되
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25 그 사
텍을 만들고 그 텍 주위에 금으로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텍 곁에 달라 이는 상 멜 채를 펴
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
라 29 너는 대접과 술가락과 병과
으로 만들지며 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 상)



만들되 장이 이 규빗, 광
게 하고 24 정금으로 싸
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테를 만들고 26 그것을
위 네 모퉁이에 달되 27
곳이며 28 또 조각목으
를 이것으로 펴 것이니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

[레 24:5,6]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덩이를 예바 십분 이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레 24:8]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요 6:35,49-5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
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9 너희 조상
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행 17: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
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 떡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안에서 오직 그의 말씀으로 살아 갈 것을 가리킨다.

[레 24: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마 12: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 다윗이 진설함 떡을 먹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성소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레 24:5-9]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덩이를 예바 십분 이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언약의 표이며,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실 것을 표상한다. 생명력을 더 풍성히 하실 것이다.

3. 또 이 떡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떡 상은 예수님의 보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출 40:22]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사 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겔 1:4,5, 24-28]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

상이라/ 24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앞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계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 떡 상은 성소 북쪽에 있고 그 맞은 편 곧 성소 남쪽에 일곱 등대가 있었다. 계시록의 이 기록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소 떡 상 앞 곧 그 맞은 편에 등대를 놓게 함으로 이 사실을 표상하고 있다.

4. 성소의 남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일곱 가지가 난 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킬 뿐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로 표상된 성령과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가리킨다.

[출 25:31-39]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32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33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갈게 할지며 34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되 38 그 불집게와 불뿔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레 24: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3 아론은 회막 안 증거대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으니 이는

[사 11:2] 여호와와 신 곧 지혜

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요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

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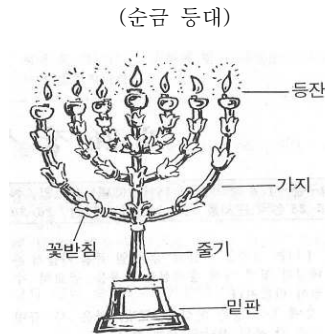
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
명이라.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계 2:7,11,17,29, 3:6,13,22]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와 총명의 신이요 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령이 오시면 그가 너

도하시리니 그가 자의

것을 말하시며 장래

5.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마 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리므로 집안 모

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

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엡 5:8,9]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 37:5,6]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 성소에는 창문이 없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으므로 오직 등대의 빛 만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빛이신 주님만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사실을 가리키며 또한 주님 외에 참 빛이 없음을 가리킨다.

[사 2: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

[요 1:9, 4]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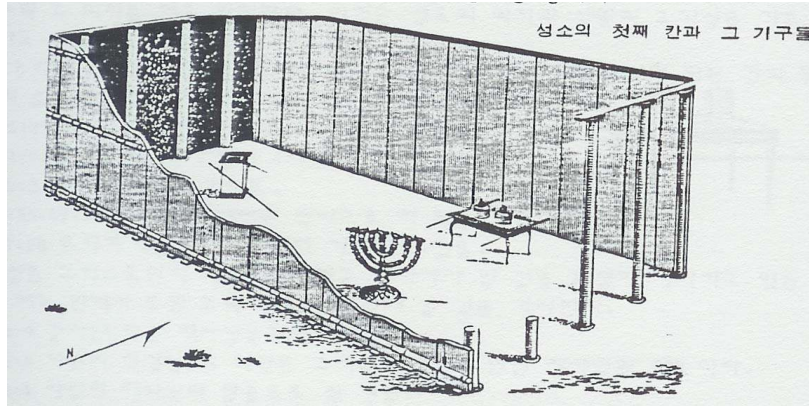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일 2:9-11]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

데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

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

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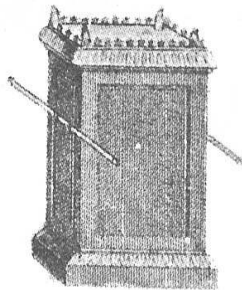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12:35,36]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7. 성소 정면 곧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킨다.

[출 30:1-8]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2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의 두를지며 4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메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과 연하게 하고 3 단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리 둘을 만들되 곧 그를 켈 곳이며 5 그 채 6 그 단을 증거궤 위장 밖에 두라 그 속죄

[출 40:26]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시 141:2]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8:3,4]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딤후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창 18:22-26]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8. 지금까지 살펴 본 성소의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봉사하는 기구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은혜의 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부의 행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히 9: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 매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어로 타미드(תמיד)이다.

9. 날마다 행하는 봉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번제단: 날마다 드리는 제사.

[민 28:3-6]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한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 번제단에 행하는 모든 제사는 항상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리킨다. “타미드”는 특별히 상번제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하는 그의 백성들의 언약관계를 확인하는 제사이다.

2) 떡 상: 항상 차려져 있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먹어야 하는 생명 양식을 뜻함.

3) 등 대: 항상 켜져 있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빛을 비추시는 주님.

4) 분향단: 날마다 향을 사름.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중보.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롬 8:26,34]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는 말: 오늘은 성소의 첫 칸에 있는 기구에 대하여 그 구속 사업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과 성령의 사랑 중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정결케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참고>: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계약궤를 따라 다니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곳에 이르렀을 때에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그 장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 곳으로 가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한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어야 한다. 그 때에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다.’”(마카비 하 2:4-8)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검비하게 하고 징계하시려고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몇 신실한 종에게 성전, 즉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던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도 보여 주셨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전이 파멸되기 직전에 두 돌비가 담겨 있는 법궤를 슬픔과 탄식 속에 어떤 굴 속에 은밀히 감추어 두었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서 숨겨질 것

이며 결코 다시 그 백성들에게 회수되지 못할 것이다. 그 거룩한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진 후에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살아남는 이들 195쪽)